

한국 반 학습 계획

일시: 2020년 4월 11일

교사: 김소희

교재: 한국어 8, 부교재: 국어 6-2 읽기

시간	수업내용
1교시 9:30~10:10	숙제 확인: 한국 친척 주소/google forms 숙제 답 확인 한국어 8, 12과 속담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담 활용 표현: ~다더니 - 상황에 맞는 속담을 골라 대화에 활용하기
2교시 10:15~11:00	주제 수업: 한국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하고 싶은 한국음식에 대해 이야기, 읽기 - 기분이나 날씨에 따른 한국음식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 - 다양한 한국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표현 익히기
3교시 11:15~11:55	민주주의 생활 양식과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주의의 뜻 -민주주의 적인 해결방법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4교시 11:55~12:40	-경신대기근 이후 조선사회의 변화 -당쟁이란 무엇인가? -영/정조의 탕평책 -정약용의 거중기와 녹로(동영상, 수원화성과 거중기의 원리)
숙제	<p>_____ 학생은 위에 표시된 4월 4일자 숙제와 답안지 확인 및 채점을 모두 마쳤습니다.</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부모님 확인 서명: _____</p>

한국반	음식관련 속담	속제
-----	---------	----

● 다음에 오는 속담을 잘 읽어 보세요.

1. 누워서 떡 먹기
2. 애들 앞에서는 송늬도 못 마신다.
3. 우물가에서 송늬 찾는다.
4.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5.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6.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다.
7.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8.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9. 똑배기보다 장맛이다.
10. 팔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는다.

● 위에서 읽은 표현의 의미를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 가.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믿을 수 없다.
- 나. 겉모양이 좋은 것이 내용도 좋다.
- 다.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
- 라. 일이 다 되기도 전에 미리 좋아한다.
- 마. 상황이 되면 그 일을 해 버린다.
- 바. 어떤 일에는 분명 원인과 결과가 있다.
- 사. 거의 다 된 일을 망친다.
- 아.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 자. 상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다. 차. 아주 쉬운 일이다.

한국반	한국음식	읽기 수업 자료/숙제
-----	------	-------------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자랑하고 싶을 때 무슨 음식을 생각할까? 아마 한정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통 식단을 바탕으로 한 궁중 음식, 서민 음식이 모두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팔이 나 닳아 음식을 집을 수 없을 정도의 떡 벌어진 상차림은 '한국 대표급' 이미지를 준다. 하지만 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일단 거기에 나오는 '신선로'니 '구절판'이니 하는 궁중 음식들은 우리가 늘 쉽사리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귀한 손님 대접을 위해 어찌다 그런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 뭐냐고 물을 땀 뭇가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서민적 음식'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신선로



← 구절판

그런 점에서 다양한 '국물'을 기본으로 한 음식들을 우선 들고 싶다. 언젠가 중국 친구를 데리고 어딜 갈까 고민하다 수제비 집을 찾을 적이 있다. 그 친구는 절대 대식가가 아님에도 향아리의 수제비를 계속 떠먹으며 '맛있다'를 연발하는 것이었다. 걸쭉한 수제비 국물이 그를 사로잡은 게 틀림없었다.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들어간 분식집에서 얼큰한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그 맛에 감탄했던 프랑스 친구도 생각난다.



향아리 수제비



오리탕



청국장

사실 아시아의 국물은 어느 정도 서양 사람들에게도 이미 알려져 있다. 맛이 깊은 국물 때문에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극찬했다던 베트남 쌀국수 라든지, 태국 국수, 일본 우동 등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물이 갖는 매력은 훨씬 색다르고 특이하다. 한국에 와서 여행을 무척이나 많이 다녔던 시절, 입맛을 사로 잡은 음식들은 광주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먹은 담백한 오리탕, 경남 산청의 외진 식당에서 먹은 구수한 청국장 등 주로 국물이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국물이 외국의 음식과 차별화된 점은 다양한 '시원함'이다. 감자탕, 삼계탕, 갈비탕 버섯전골 등 맛은 제각각이지만, 그 맛마다 특유의 시원함이 있다. 이 시원함은 고기, 멸치, 사골 등의 육수가 다른 재료들과 어울리면서 계량컵과 계량스푼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적 조화를 이루어 낸 맛이다.

요리를 좋아하는 나는 이런 비법을 이용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요리가 있다. 바로 멸치 육수로 소스를 만든 스파게티이다. 이걸 먹어본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맛이 독특하다는 칭찬도 꽤 들었다. 그런 게 멸치뿐인가? 한국 고유의 장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국물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흔히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 것도 없을 때 '국물도 없다'란 옛말을 쓴다. 하찮은 것조차 없다는 뜻이다. 옛말 틀린 게 없다고 하지만 그 말만은 예외라 하고 싶다. 우리 한국의 국물처럼 '끝내 주는' 음식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자탕



삼계탕

한국반	한국음식	읽기 확인 숙제
-----	------	----------

- 수업자료 읽기 '한국음식'을 다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읽기 시작 시간: 시 분> < 읽기 끝난 시간: 시 분>

1.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2. 읽기 내용에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 1) 구절판은 언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
- 2) 한국의 국물은 베트남, 태국, 일본 등 아시아의 국물과 유사하다. ()
- 3) 한국 국물은 꼭 계량컵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4) 한국 국물은 멀치로 내는 것이 최고다. ()

3. <보기>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표현을 찾고 본문에 밑줄을 치세요.

<보기> 사로잡다 고유하다 외진(외지다) 무궁무진하다

- 1) 생각이나 마음을 한 쪽으로 모으거나 당기다.
- 2) 흔하지 않고 소중하다.
- 3) 먼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
- 4) 매우 많아서 끝이 없다.

4. '한정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5. 다음 국물의 맛을 표현해 보세요.

1) 수제비

2) 라면

6. 한국 국물이 외국 음식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글쓴이가 개발한 요리는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반응을 어땠습니까?

8. 이 글에 나온 '국물도 없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9. 다음 중 알맞은 것을 선택하세요.

- 1) 걸쭉한 (미숫가루 / 수정과)
- 2) 얼큰한 (삼계탕 / 순두부)
- 3) 담백한 (두부 / 삼겹살)
- 4) 칼칼한 (불고기 / 매운탕)

10. 다음을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세요/

1) 무궁무진하다

2) 국물도 없다

- 다음의 오는 단어를 알맞게 분류하여 써 보세요.

얼큰하다 고소하다 담백하다 새콤하다 멩멍하다 짹짹하다
 달콤하다 씹씹하다 구수하다 뽀다 달달하다 칼칼하다
 심심하다 간간하다 매콤하다

단 맛(설탕)	
매운 맛(고추)	
짠 맛(소금)	
신 맛(식초)	
쓴 맛(약)	
뽀은 맛(감)	
싱거운 맛(소금부족)	
구수한 맛(밥,누룽지)	
깨끗한 맛(두부)	

한국 반	문형/문법	숙제
------	-------	----

- '~하기에'를 넣어 <보기>와 같이 답해 봅시다.

<보기>

가: 이 책 어렵지요? 중학생이 읽다)

나: 네, 중학생이 읽기에는 어려워요.

1. 가: 내일 Top이 생일파티에 올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다)

나:

2. 가: 소희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지? (내가 알다)

나:

3. 가: 어느 수박이 더 맛있어 보이니? (내가 보다)

나:

4. 가: 내일 날씨가 어떨지 걱정이다. (내가 듣다)

나:

5. 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좁지 않지요? (네 식구가 살다)

나:

6. 가: 이 드레스가 소희에게 어울릴까? (소희가 입다)

나:

7. 가: 오늘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내가 생각하다)

나:

- <보기>와 같이 '~을 게 뻔하다'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성적이 떨어질 게 뻔하다.

1.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면

2. 내 동생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 한다.

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3. 그 친구는 약속시간을 안 지키기로 유명 하다.

오늘도 _____

4. 나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 _____

5. 우리 야구팀은 2년 연속 우승을 했어요.

올해도 _____

6.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일본과 시합을 한다.

지난 전적을 보면 _____

7. 김연아 선수는 연습 벌레라고 한다.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_____

한국반	발음과 표기	숙제
-----	--------	----

- 늘이다: 정해져 있는 길이에서 잡아당기거나 어떤 힘을 가해서 처음의 길이보다 길게 한다.
- 늘리다: 힘이나 양 등을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붙여서 전보다 크게 또는 많게 한 다는 뜻

1. 학생 수가 많아 반을 (늘였어요/늘렸어요).
2. 요즘 살이 찌서 바지 허리를 (늘렸다/ 늘었다).
3. 선생님, 쉬는 시간 좀 (늘려/ 늘어) 주세요.
4. 오늘은 뉴잉글랜드 지역 글짓기 대회가 있다.

내년에는 한국어 실력을 (늘려서/ 늘여서) 꼭 참가 해야겠다.

5. 줄을 잡아 당겨 (늘렸어요/ 늘였어요).
6. 옛 가락 (늘러지듯/ 늘어지듯) 축 (늘러져/ 늘어져) 있었다.

- 별이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 별리다: 둘 사이를 넓게 하거나 머리한다.

1. 잔치를 (별였다/ 별렸다).

2. 입을 (별이고/ 별리고) 하품을 했다.

3. 사업을 (별였다/ 별렸다).

4. 나는 일을 (별려/ 별여) 놓고 정리를 못한다.

5. 할머니께서 두 팔을 크게 (별려/ 별여) 나를 안아 주셨다.

- 짧은 글짓기

1. 늘여:

2. 늘렸다:

3. 별인다

4. 별려